

**“정말 똑같네” ‘위조상품 전시공간’ 서울대전에서 만난다**

-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)·정부대전청사 민원동(대전)에 위조상품 전시공간 개소 -
- 9. 4.(금)부터 화장품·신발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·정품 비교 전시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9. 4.(금)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 1층과 정부대전청사(대전 서구) 민원동*에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‘위조상품 전시공간’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기존 정부대전청사 1층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민원동으로 이전

이번 전시공간 개소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조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.

9. 4.(금)부터 서울 위조상품 전시장(한국지식재산센터)에서 시작되는 첫 전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화장품, 신발 등 ‘생활밀착형 위조상품’과 정품을 비교 전시한다.

이번 전시는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을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정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교묘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. 이를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깊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유통 동향과 국민들의 관심 품목 등을 고려해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,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“지난해 정부대전청사에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,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찾아와 위조상품의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에 전시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”며, “소비자들이 전시된 정품과 가품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위조상품이 정품과 얼마나 유사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고,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위조상품 전시장(서울) 사진

담당부서	지식재산보호협력국	책임자	과 장	엄기훈 (042-481-6757)
	상표특별사법경찰과	담당자	사무관	장대현 (042-481-8144)

